SK에너지, 일본에 FCC 기술 전수

Taiyo Oil 직원 10명 대상 운용기술 교육 ... 세계적인 기술력 인정

SK에너지가 일본 정유기업에 FCC(Fluid Catalytic Cracking) 기술을 전수한다.

SK에너지는 9월7일부터 울산컴플렉스 No.1, 2 FCC 공장에서 일본 Taiyo Oil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FCC 운용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FCC는 휘발유와 제트유(항공기유) 등 고품질 석유제품을 추출하고 남은 벙커C유를 촉매제로 재가공해 휘발유와 경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설비로 알려져 있으며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에는 1989년부터 2008년 9월까지 FCC 공장 3곳이 들어섰다.

SK에너지와 Taiyo Oil은 1991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석유화학제품과 원유 거래, 유전개발 사업 협력 등 우호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Taiyo Oil은 2010년 FCC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SK에너지에 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SK에너지 관계자는 “과거 해외 엔지니어로부터 기술을 배운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선진국인 일본의 기술자를 우리가 교육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Taiyo Oil 교육생 10명은 9월18일 오후 2시 SK에너지 FCC No. 1공장 대회의실에서 2주간의 교육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수료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8>